



勤 儉 節 約

학교장 / 김 영 석

본 교 교육목표중의 하나가 「勤儉節約 하는 여성의 육성」이다. 내가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수백평 규모의 실습지(밭)가 있었고 일주일에 3~4시간 정도의 농작(農作) 실습 시간이 있어 땅을 파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면서 땀 흘려 일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어려서부터 땀을 흘리는 교육, 힘들고 껴는 일을 즐거이 해낼 수 있는 인내심 교육을 한점의 불평도 없이 받아온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부지런한 민족, 힘들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끈질긴 우리의 민족성을 배워야겠다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밑듯 찾아온 것이 었그제 일 인데 요새는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잘못 인식하였었노라」고 야유와 조소를 당하는 지경에 다다랐으니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메고 갈 젊은이들이여 훗날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국민소득 5000불 정도에서 20000불 넘는 나라 국민들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 안일한 생활, 허영이 가득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이 몇 년만 더 계속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더 늦기전에 우리 文一人이 앞장서서 힘들고 껴는 일을 찾아 내어 땀흘려 일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되는 일이 몇가지 있다.

그 첫째는 물건을 소중하게 아낄 줄 모르는 습관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물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내 물건 내 마음대로」식의 풍토가 만

세계적으로 부지런한 민족 힘들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끈질긴 우리의 민족성을 배워야겠다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밀듯 찾아온 것이 었그제 일인데 요새는 이들로 부터 조소를 받고 「대한민국을 잘못 인식하였었노라」고 야유를 당하는 지경에 다다랐으니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연되어 있어 크게 염려되는 것이다. 자기 소지품을 분실하였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야 할 것이어늘 학교에 습득물 함을 설치하여 주워온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소지품을 분실하면 잔소리 한 마디 없이 더 좋은 물건을 선뜻 사주는 부모님들에게도 문제는 있으나, 자기 물건 하나 챙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 낭비벽이 매우 심하다고 느껴진다. 밝은 날에도 교실 전등을 있는 대로 켜 놓는 일이나, 수도를 있는 대로 틀어 놓고 마포를 흔들어 빨고 있는 모습. 아직도 멀쩡한 운동화가 쓰레기통에서 나오고 있고 군음식을 때없이 사 먹는 버릇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 경제 사정과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을 대수롭지 않게 낭비하고 있고 습관적인 군것질로 낭비하는 돈이 적어도 매일 몇십만원에 달할 듯 싶다. 용돈을 아껴서 한푼 한푼 모아 저축을 해야 함에도 군것질로 다 써버리고, 저금할 돈도 따로 부모님에게 타서 통장에 넣는 것은 근검절약 교육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런식의 저축은 부모님의 저축을 이름만 바꿔 심부름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지런하고 알뜰한 여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부터라도 생활태도를 바꾸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文苑